

제 4 교시

사회탐구 영역(윤리와 사상)

성명

수험번호

3

1

1. 다음 가상 대화의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스승님, 우리가 따라야 할 도덕의 기본 원리는 무엇 인가요?

1

그건 다름 아닌 공리의 원리라네.

2

그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.

3

행복을 증가시키느냐 감소시키느냐에 따라 개인의 행위나 정부 정책을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원리를 말하네.

4

- ① 헛된 욕심을 버리고 금욕적 태도를 지니려고 노력해야 한다.
- ② 사회적 삶에서 벗어나 개인적 이익과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.
- ③ 쾌락 산출과 무관하게 자신의 소망을 실현하고자 해야 한다.
- ④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쾌락을 증진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.
- ⑤ 쾌락을 멀리하고 검소와 절제를 습관화하려고 노력해야 한다.

2.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사치하는 사람은 불손하게 되고, 지나치게 아끼는 사람은 고루하게 된다. 불손한 것보다는 고루한 것이 낫다.
- 예(禮)는 사치하는 것보다는 검소한 것이 낫고, 상(喪)은 형식을 잘 갖추는 것보다는 슬퍼하는 것이 낫다. 예가 아니면 보지도, 듣지도, 말하지도, 행동하지도 말아야 한다.

- ① 사치와 인색은 모두 예에 맞는 행동이 아니다.
- ② 사욕(私欲)을 이겨내지 않으면 예를 회복할 수 없다.
- ③ 사회적 지위에 따라 예의 표현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.
- ④ 형식을 버리고 공경의 마음을 갖추면 예를 다한 것이다.
- ⑤ 어짊[仁]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예는 허례(虛禮)일 뿐이다.

3. 다음을 주장한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

개인이나 집단은 그들이 어떤 고정된 결과에 접근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,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냐에 따라 그 가치가 판단되어야 한다. 예를 들어, 건강의 경우 절대적이고 고정된 목적으로서의 건강이 선이 아니라 건강의 증진이 선이다. 성장 그 자체만이 유일한 도덕적 목적이다.

- ① 도덕은 다른 무엇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다.
- ②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때 지식은 비로소 가치를 지닌다.
- ③ 도덕적 성장을 위해서는 절대적 도덕 법칙을 따라야 한다.
- ④ 모든 학문의 궁극 목적은 불변의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다.
- ⑤ 도덕적 규범은 상황과 무관하게 보편타당성을 지녀야 한다.

4. (가)의 고대 동양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을 (나) 그림으로 탐구할 때, A~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 [3점]

(가)	<p>갑: 성인(聖人)이 무위(無爲)하고 고요함을 좋아하면, 백성은 저절로 교화되고 바르게 된다. 법령이 많을수록 도둑이 더욱 많아진다.</p> <p>을: 성인이 제정한 예(禮)가 없으면 나라를 다스릴 수 없고 인성도 교화할 수 없다. 이는 마치 저울이 없으면 경중을 가늠할 수 없는 것과 같다.</p>
(나)	<p>사상가 갑,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.</p> <p>A: 예</p> <p>B: 예</p> <p>C: 예</p> <p>갑의 입장</p> <p>을의 입장</p> <p>아니오</p> <p>&lt; 범례 &gt;</p> <p>□: 출발 조건</p> <p>◇: 판단 내용</p> <p>→: 판단 방향</p> <p>○: 사상가의 입장</p>

< 보 기 >

- ㄱ. A: 하늘은 어질지 않지만 사람을 특별하게 여기는가?
- ㄴ. A: 예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혼란의 원인인가?
- ㄷ. B: 인위 규범을 없애야 평화로운 사회가 이루어지는가?
- ㄹ. C: 사람이 귀한 것은 옳음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인가?

- ① ㄱ, ㄴ
- ② ㄱ, ㄷ
- ③ ㄴ, ㄹ
- ④ ㄱ, ㄷ, ㄹ
- ⑤ ㄴ, ㄷ, ㄹ

5. 다음을 주장한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, ㉠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인간의 삶에서 무엇보다 유익한 것은 우리의 이성을 가능한 한 완전하게 하는 것이며, 오로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㉠ 지복(至福)을 누릴 수 있다. 이성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신과 신의 본성 그리고 신의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생기는 활동을 파악하는 것이다.

- ① 유일한 실체인 신을 인식할 때 생겨나는 정신의 만족이다.
- ② 이성적 인식을 통해 필연성을 극복함으로써 얻는 자유이다.
- ③ 신의 계율을 충실히 따름으로써 내세에 받게 되는 구원이다.
- ④ 이웃을 조건 없이 사랑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신의 은총이다.
- ⑤ 모든 감정을 버리고 이성을 따름으로써 얻는 마음의 평화이다.

[6~7] 갑, 을은 중국 사상가들이다. 물음에 답하시오.

갑: 하늘이 만물을 낼 때, 기(氣)로 형체를 이루고 이(理) 또한 부여한다. 만물은 그 이를 덕으로 삼으니 그것이 성(性)이다. 맑지 않고 두텁지 않은 기에 이가 자리 잡으면 사욕(私欲)이 이를 이긴다.

을: 하늘은 성의 근원이고 성은 마음의 본체이니 마음을 다 하면 성을 다하는 것이다. 마음 밖에 이도 물(物)도 없으니, 이를 밖에서 찾는 것은 의(義)가 밖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.

6. 갑,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[3점]

- ① 갑은 사람에게서는 성이 있지만 사물에는 성이 없다고 본다.
- ② 을은 효의 이치는 부모에게 있고 내 마음에는 없다고 본다.
- ③ 갑은 을과 달리 성은 마음을 벗어나 있지 않다고 본다.
- ④ 을은 갑과 달리 개별 사물들도 이치를 갖추고 있다고 본다.
- ⑤ 갑, 을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치가 곧 성이라고 본다.

7.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가 갑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

하늘이 사람에게서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성을 부여하여 악을 꺾고 선으로 나아가라고 하였으니, 성이 없다면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다. 따라서 선악을 선택한 공과(功過)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.

— < 보 기 > —

- ㄱ. 성에는 선천적인 덕이 내재되어 있지 않다.
- ㄴ. 인간의 성은 선행을 실천함으로써 형성된다.
- ㄷ. 덕을 실현할 수 있는 성은 인간만이 지니고 있다.
- ㄹ. 기질은 변화시킬 수 있지만 성은 변화시킬 수 없다.

- ① ㄱ, ㄴ    ② ㄱ, ㄷ    ③ ㄴ, ㄷ    ④ ㄴ, ㄹ    ⑤ ㄷ, ㄹ

8. (가)를 주장한 사상가가 (나)의 K의 행위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(가)	선한 의지라는 개념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의무라는 개념을 다루어야 한다. 의무란 법칙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가리킨다. 의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는 법칙뿐이고 주관적으로는 나의 모든 경향성을 포기하더라도 그 법칙을 따르겠다는 준칙뿐이다.
(나)	K는 길가에 쓰러져 신음하는 사람을 보았다. 두려워서 한참을 망설였지만 그냥 지나치는 것은 사람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도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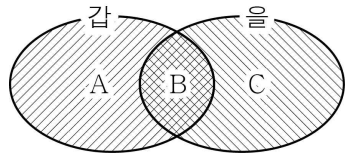
- ① 동정심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도덕적 행위라고 할 수 없다.
- ② 의무에 맞고 의무 의식에서 비롯되었으므로 도덕적 행위이다.
- ③ 결과적으로 위기에 처한 생명을 구했으므로 도덕적 행위이다.
- ④ 즉각적으로 도와주지 않았으므로 도덕적 행위라고 할 수 없다.
- ⑤ 도덕 법칙을 따른 것이 아니므로 도덕적 행위라고 할 수 없다.

9. (가)의 비유를 제시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, (나)의 ㉠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(가)	커다란 ㉠ 동굴 속 맨 안쪽에 오직 동굴 벽면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묶여 있는 죄수들이 있다. 그들은 동굴 벽면에 나타나는 갖가지 그림자들을 진짜 사물들의 모습이라고 믿으며 살아간다. 어느 날 죄수 한 명이 ㉡ 동굴 밖으로 나가 실제 사물들을 보게 된다. 마침내 그는 태양을 직접 볼 수 있게 되고, 태양이야말로 세상 만물의 근원이라는 것을 깨닫는다.
(나)	학생: ㉠이 상징하는 세계에서 ㉡가 상징하는 세계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? 교사: _____ ㉠

- ① 이성으로 욕망을 조절하고 실재를 인식하려고 힘써야 한다.
- ② 현실이 참된 세계임을 깨닫고 진리 탐구에 헌신해야 한다.
- ③ 이상 세계와 유일신의 존재를 믿고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.
- ④ 정념을 극복하고 신과 자연의 본성인 이성을 따라야 한다.
- ⑤ 은둔자적인 생활을 하면서 정신적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.

10. (가)의 사회사상가 갑, 을의 입장을 (나) 그림으로 표현할 때, A~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 [3점]

(가)	갑: 자연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신체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사회 계약은 정치체에 전 구성원을 지배할 절대 권력을 부여한다. 일반 의지에 의해 지휘되는 이 권력을 주권이라고 부른다. 을: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은 자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전쟁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. 그래서 계약을 통해 하나의 인격체로 통일된 강력한 국가를 만들게 된다. 이 인격체가 주권자이며 절대 권력을 가진다.
(나)	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— &lt; 보 기 &gt; —</p> <p>A: 갑만의 입장 B: 갑, 을의 공통 입장 C: 을만의 입장</p> </div>

- ㄱ. A: 주권은 양도될 수 없고 한 사람이 독점할 수도 없다.
- ㄴ. B: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형성된다.
- ㄷ. C: 정치권력이 없어도 자연법이 있으면 평화가 보장된다.
- ㄹ. C: 주권자의 절대 권력은 언제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.

- ① ㄱ, ㄴ    ② ㄴ, ㄷ    ③ ㄷ, ㄹ
- ④ ㄱ, ㄴ, ㄹ    ⑤ ㄱ, ㄷ, ㄹ

# (윤리와 사상) 사회탐구 영역

3

11. 다음은 한국 사상가 갑, 을의 가상 대화이다. 갑, 을의 입장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 [3점]

이(理)가 발하고 기(氣)가 따른다는 것은 이를 주(主)로 하여 말한 것일 뿐이지 이가 기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아니니, 사단이 바로 그것입니다.



갑

이가 발하고 기가 따른다는 것은 이기에 선후가 있다는 주장이므로 옳지 않습니다. 사단을 비롯한 모든 정(情)은 기가 발하고 이가 타는 것입니다.



을

< 보 기 >

- ㄱ. 갑: 사양하는 마음은 이가 발하고 기가 따른 것이다.
- ㄴ. 을: 미워하는 마음에도 이와 기가 언제나 함께 있다.
- ㄷ. 을: 선한 정뿐만 아니라 악한 정도 기가 발한 것이다.
- ㄹ. 갑, 을: 정에는 이가 발한 것도, 기가 발한 것도 있다.

- ① ㄱ, ㄴ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ㄱ, ㄷ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ㄷ, ㄹ
- ④ ㄱ, ㄴ, ㄷ 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⑤ ㄴ, ㄷ, ㄹ

12. (가)를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, (나)의 퍼즐 속 세로 낱말 (A)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(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이성에 따라 활동하고 그 이성을 가꾸는 사람은 신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다.</li><li>○ 어떤 활동을 잘 수행하려면 반드시 덕이 필요하다. 덕에는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이 있다.</li></ul>																				
(나)	<table border="1">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</td><td></td><td>(A)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</td><td>(B)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/table> <p>[가로 열쇠]</p> <p>(A): 좋은 운수. 예) 그 경기에서 ○○의 여신은 우리 편이었다.</p> <p>(B): 복을 기원함. 예) 무속에는 ○○ 신앙적 요소가 깃들어 있다.</p> <p>[세로 열쇠]</p> <p>(A): ..... 개념</p>								(A)				(B)								
		(A)																			
	(B)																				

- ① 인간의 최고선으로서 덕과 일치하는 정신의 활동이다.
- ②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으려는 의지를 습관화한 덕이다.
- ③ 어떤 존재가 지닌 고유한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한 상태이다.
- ④ 구체적 상황에서 무엇이 중용인지 파악하게 해 주는 덕이다.
- ⑤ 덕을 갖추고 신의 은총을 받음으로써 내세에 실현되는 것이다.

13. 사회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갑: 사람들은 오직 이익 때문에 정부에 복종할 의무를 갖는다. 이익을 추구하는 본성으로 인하여 인간은 자연적 욕망을 줄이고 정부에 복종할 수 있게 된다.

을: 사람들이 어떤 정부의 영토 일부를 향유한다면, 그러한 향유를 지속하는 동안에는 그 정부에 복종하기로 동의한 셈이므로 그 정부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.

- ① 갑: 정부가 주는 이익이 없어도 정부에 복종해야 한다.
- ② 갑: 정치적 의무의 원천인 이익에 안전은 포함되지 않는다.
- ③ 을: 정치적 복종의 의무는 묵시적 동의에 의해서도 생긴다.
- ④ 을: 정치적 복종에 대한 동의는 어떤 경우에도 철회할 수 없다.
- ⑤ 갑, 을: 정부는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한다.

14. 사회사상가 갑, 을의 입장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 [3점]

갑: 천부적 재능의 영향을 완화시키는 차등의 원칙을 정의의 원칙으로 채택해야 한다. 사회적 행운이나 천부적 재능을 소득과 부의 분배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.

을: 천부적 재능에 따른 분배 원리는 소유 권리를 창출하는 과거의 행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. 그런 점에서 이러한 원리는 파정적인 분배 원리와 달리 정형적 원리이다.

< 보 기 >

- ㄱ. 갑: 모든 가치는 차등의 원칙에 따라 분배해야만 한다.
- ㄴ. 을: 정형적 분배 원리는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게 된다.
- ㄷ. 을: 취득과 이전 과정의 정당함이 소유 상태를 정당화한다.
- ㄹ. 갑, 을: 최대 행복의 원리를 분배 원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.

- ① ㄱ, ㄴ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ㄱ, ㄷ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ㄴ, ㄹ
- ④ ㄱ, ㄷ, ㄹ 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⑤ ㄴ, ㄷ, ㄹ

15. 고대 동양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갑: 눈이 좋은 색을, 귀가 감미로운 소리를 추구하는 것은 타고난 것이지만 군자는 이런 것을 성(性)이라고 하지 않는다. 군자는 부자 사이의 인(仁), 군신 사이의 의(義)를 성이라고 한다.

을: 눈이 지나치게 밝은 자는 온갖 색깔에 눈이 어지럽혀지고, 귀가 지나치게 밝은 자는 온갖 소리에 귀가 어지럽혀진다. 인의를 내세우는 자는 덕을 뽑아 버리고 성을 막아 명성을 얻으려 하는 자이다.

- ① 갑: 인의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성이 훼손된다.
- ② 갑: 감각적 욕망을 제거해야 덕을 실현할 수 있다.
- ③ 을: 눈과 귀의 작용에 순응하고 시비를 구별해야 한다.
- ④ 을: 인의와 육체적 욕구는 모두 하늘이 부여한 성이다.
- ⑤ 갑, 을: 성을 거스르지 않아야 이상적 인간이 될 수 있다.

16.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의 입장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 [3점]

비록 본래의 성품이 부처와 다름이 없음을 깨달아도 오랫동안 익혀 온 습기(習氣)를 갑자기 없애기는 어렵다.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에 의지해 닦아서 점차로 그 공(功)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. 이를 일러 점수(漸修)라고 한다. 이는 마치 성인(聖人)의 씨앗을 오래 길러야 성인이 되는 것과 같다.

— < 보 기 > —

- ㄱ. 경전을 완전히 이해해야만 단박에 깨달을 수 있다.  
 ㄴ. 보통 사람도 본성을 깨달으면 곧바로 성인이 된다.  
 ㄷ. 불성을 자각한 후에도 정혜(定慧)를 함께 닦아야 한다.  
 ㄹ. 부처의 마음[禪]과 부처의 말씀[敎]은 서로 다르지 않다.

- ① ㄱ, ㄴ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ㄱ, ㄷ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ㄷ, ㄹ  
 ④ ㄱ, ㄴ, ㄹ 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⑤ ㄴ, ㄷ, ㄹ

17. 사회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갑: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그것이 민주적이라고 해도, 그 어떤 독재 정치 못지않게 개인의 자유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노예의 길로 이끌 것이다. 국가의 임무는 경쟁이 최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.  
 을: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첫걸음은 프롤레타리아를 지배 계급으로 만들고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것이다. 프롤레타리아는 독재를 통해 모든 생산 수단을 프롤레타리아의 수중에 집중시키며 생산력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.

- ① 갑: 복지 제도를 확대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.  
 ② 갑: 실업이나 공황 문제는 정부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.  
 ③ 을: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 갈등은 평화적 해결이 가능하다.  
 ④ 을: 노동자 혁명은 계급과 사적 소유가 없는 사회를 추구한다.  
 ⑤ 갑, 을: 국가가 존재해야만 개인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된다.

18. 근대 한국 사상가 갑, 을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?

갑: 서학(西學)은 이(理)가 만물의 근원임을 알지 못하고, 도리어 형체가 있는 것이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고 인식한다. 이를 버리고 학문을 논하는 것은 사설(邪說)이다.  
 을: 서학에는 사유[思]는 있지만 참된 기도[呪]가 없다. 그들의 말과 글에는 차례와 순서가 없으며, 도무지 한울님을 위한 단서가 없고 제 몸만을 위하여 빌 따름이다.

- ① 성리학 이외의 학문은 모두 배척해야 하는가?  
 ② 서양 문물을 수용해야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가?  
 ③ 유교적 가치는 이상 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가?  
 ④ 만민 평등사상에 따라 신분 차별을 없애야 하는가?  
 ⑤ 서양 학문을 통해서도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는가?

19. 서양 사상가 갑, 을의 입장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 [3점]

갑: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은 어원적으로 볼 때 ‘내부의 선한 신’, 즉 선한 이성을 의미한다.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신과 인간에게 공통된 이성을 따른다면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.

을: 인간이 추구하는 완전한 행복을 위해서는 인간의 이성능력을 넘어서는 어떤 것이 계시를 통해서 알려질 필요가 있다. 그리고 자연적 덕과 함께 세 가지의 신학적 덕인 믿음, 소망, 사랑도 필요하다.

— < 보 기 > —

- ㄱ. 갑: 신과 인간을 포함한 세상 만물의 본질은 이성이다.  
 ㄴ. 갑: 행복은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을 피한 상태이다.  
 ㄷ. 을: 신은 만물을 창조하고 주재하는 인격적인 존재이다.  
 ㄹ. 갑, 을: 진정한 행복을 위해 신에 대한 관조가 필요하다.

- ① ㄱ, ㄴ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ㄱ, ㄷ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ㄴ, ㄹ  
 ④ ㄱ, ㄷ, ㄹ 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⑤ ㄴ, ㄷ, ㄹ

20.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. 학생 답안의 ㉠~㉣ 중 옳지 않은 것은?

#### 서술형 평가

◎ 문제: 서양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.

갑: 인간의 내면에는 신에게 잊힌 채 세상에 남아 있게 될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있다. 신 앞에 홀로 서기로 결단할 때 그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.

을: 인간은 미래를 향해서 스스로를 내던지기 이전에는 아무것도 아니다. 어떤 인간도 신의 뜻에 따라 본질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.

◎ 학생 답안

갑,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, 갑은 ㉠ 인간을 선택의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게 되는 존재로 보았으며, ㉡ 신앙으로 절대자에게 귀의할 때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. 을은 ㉢ 인간을 자유롭도록 선고받은 존재로 보았으며, ㉣ 주체적 선택을 통해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감으로써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. 한편 갑, 을은 모두 ㉤ 윤리 규범을 따르는 삶을 통해 불안과 절망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.

- ① 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㉡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㉢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㉣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⑤ ㉤

※ 확인 사항

◦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(표기)했는지 확인하시오.